

항공우주산업 10년 발전방향 수립

정부는 항공우주를 포함한 22개 업종에 대한 향후 10년 단위의 장기산업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것은 공업발전법에서 10년 단위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산업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토록 규정한데 따른 것인데, 이번에는 2005년까지 총괄부문과 개별산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기로 했다.

총괄부문에서는 공업발전법상 공업 전체의 산업구조, 수급구조, 경쟁력현황 및 향후 10년간의 변화전망과 기업현황 및 우리산업이 지향해 나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위한 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개별산업부문에서는 20개 주요업종의 현황, 전망 및 대책을 제시한다.

총괄부문은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가 산업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작업하되, 각 산업별 보고서와 기업활동요소부문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하며 개별산업부문은 각 소관과에서 업종별 민간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작성할 예정이다.

동 발전방향 수립은 6월까지 총괄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중에 정책토론회 및 공업발전심의회를 거쳐 9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10월경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항공우주부문은 항공부문과 우주부문으로 나누어 작성키로 하고 우선 우주분야의 작업에 착수했다. 우주부문 민간협의체(우주산업 장기발전 위원회)는 대학과 연구소를 비롯 다목적실용위성 개발사업 참여기업과 협회로 구성되었다.

지난 4월 4일 개최된 제1차 우주산업장기발전위원회에서 우주부문 작업계획이 확정되었고 이어 4월 28일 개최된 2차회의에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5월 10일 개최된 제3차회의에서는 작성보고서를 검토하였고,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항공우주연구소에서 동 주제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한 후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부문은 5월 17일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공업발전법시행령 개정

통상산업부는 4월 26일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1월 5일 개정 공포된 공업발전법의 법개정 취지에 맞게 동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서 공고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시토록 함.

-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제품인증제도를 통하여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요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는 등 개발된 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공업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해 관련업무를 유관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마련함.

- 공업발전심의회 기능 활성화하기 위해 종래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장기발전방향], [자원절약적 구조전환 시책]등 주요 산업시책의 수

립시에도 동심회의의 심의를 거
치도록 하고 심의회의 위원에 관
계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을 추가하
여 심의결과가 정부시책으로 효
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한·중 4개산업분야 협력방안 논의

통상산업부는 오는 6월 박재운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전후한 시기
에 자동차, 항공기, 고화질TV, 전
전자교환기 등 한·중산업협력 4
개 분과위원회를 열어 중국측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
획이다.

4월 12일 통산부 발표에 따르
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항공
기 분과위는 제3국 기술협력선과
최중조립장소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다음달 역시
서울에서 열리는 자동차 분과위
는 자동차부품 합작투자촉진방안
을 논의한다.

다음달 북경에서 개최되는 고
화질TV 분과위는 연구개발 현황
과 단계적 공동기술 개발 방안
을, 오는 9월에 북경에서 열리는
전전자교환기분과위는 차세대교
환기 공동개발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 각 분과위에서 협의된 구
체적 협력방안들은 박장관과 왕

충우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산
업협력위에서의 협의를 거쳐 결
정된다.

'96년 과기진흥 종합계획 확정

정부는 과학실험위성 우리별3
호의 개발연구, 각 시도별 지방
과학산업단지조성 및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
진키로 했다. 또 7개부처가 공동
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을 국가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
터 오는 2005년까지 총 4500억원
을 들여 생산설계 고도기술 등 6
대 핵심공통기반기술을 중점적으
로 개발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4월 25일 이홍구 국무
총리 주제로 제11회 종합과학기술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과 핵심엔지니어링기술
진흥 중장기계획을 확정하고 '96
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권고방침을 결정하는
한편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추진현
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우리별 3호의 개발은 과거처와
정보통신부의 공동사업으로 한국

과학기술원과 항공우주연구소가
협조하는 체제로 추진될 예정이
다. 동 개발사업에는 3축 안정화
방식의 자세제어, 고속 영상데이
터 전송, 전개식 태양열 전지판,
해상도 20m 이내의 선형 CCD
카메라 등의 개발이 포함된다.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금년보
다 136% 증가한 4조5690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전문교육기관 추가 지정

건설교통부는 4월 6일 교육사
령부 항공정비사 전문교육원과
아시아항공 사내 직업훈련원을
정비부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
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국내 항공기 정비관련
전문교육기관은 한국항공대학교
와 대한항공 사내 직업훈련원을
포함 모두 4개가 되었다. 항공대
학교와 대한항공 직업훈련원은
'93년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었다.

한편, 운항관련 전문교육기관
으로는 공군의 비행학교와 항공
대학교의 비행교육원등 2곳이 지
정되어 있다.